

# 알고싶습니다

지상강좌 연재 9 회

## 임 질

### ① 임균의 감염으로 생기는 급성염증

성병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임질이  
며, 남녀 다같이 불임증의 원인이 되  
기도 합니다. 임질은 임균의 감염으로 인  
해 생기는 일종의 급성염증으로서, 감  
염 후 보통 2-3일, 늦으면 7일쯤지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는 그기  
간이 짧아서 곧 알 수 있으나, 여자는  
증상이 밖으로 나타나는데 시일이 걸립  
니다.

남자의 경우, 처음에는 요도끝이 부  
은듯하면서 불쾌감이 있고, 불이나는  
듯한 따가움 때문에 소변을 볼때 이상  
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요도에서 고름이 나오고, 통  
증은 점점 심해지며, 소변을 자주보게

되고 때로는 고름에 피가 섞여 나오기  
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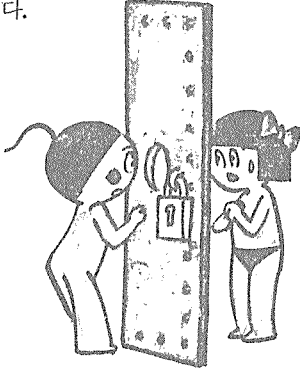


### ② 불임증의 원인이 되기도

염증이 심해지면 요도가 섬유질에 의  
해 막히게 되어, 소변을 볼 수 없게도  
됩니다. 또한 염증이 퍼져서 방광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관을 통해서 교환

에까지 염증이 퍼지면 고환염을 일으켜서 정자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불임증의 원인이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임질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처음 외음부가 빨개지며, 피부가 벗겨지고, 질에서 나오는 분비액도 보통 때보다 진하고, 녹색이나 황색으로 됩니다.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 요도가 짧기 때문에 요도에 침입한 임균은 곧 방광으로 퍼져 방광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변을 보는데 통증을 느끼며, 소변의 횡수는 많으면서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때로는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염증은 자궁을 거쳐 난관, 난소에까지 이르게 되고 난관염과 난소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때로는 난관이 막혀서 불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궁외임신이 되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 ③ 임질에는 면역성이 없어

때로는 임균이 혈류 속으로 들어가서 전신패혈증(全身敗血症)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임독성 관절염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모체에 병균이 있을 때에는 분만시에 모체의 분비물이 신생아의 눈에 들어가 결막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천천적으로 임균에 대하여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에 감염될 수 있고 또한 몇번이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균도 약에 대한 반응은 예민하여, 특히 페니실린이 특효약이라 하여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페니실린 뿐만 아니라 다른 항생제에 대하여도 저항력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균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